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이 사는 지혜와 버려야 할 것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점점 젊어 지시네요’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벌써 노년기에 접어든 것이다. 좀 나이를 먹으면 화장실에서 나올 때 바지 지퍼를 올리는 것도 종종 잊어버린다. 더 늙으면 바지 지퍼 여는 것을 잊게 된다.” 이 말은 마빈토키아어의 ‘탈무드 잡안집’에서 따온 말이다.

탈무드는 또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설명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모시듯 비위를 맞춘다. 두 살은 폐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 다닌다. 열여덟 살은 말. 다 자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 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똑같이 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는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 되고 소신은 어집이 된다. 마이크를 잡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주위에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오죽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했을까’

‘늙어 자한 편에서 ‘공자는 4가지가 완전히 없었다(자질사·子絶四)’고 했다. 그 4가지란 의(義), 필(必), 고(固), 아(我)다. 여기서 ‘의’는 근거 없는 억측이요, ‘필’은 무리하게 관찰시키려는 자세요, ‘고’는 융통성 없는 완고함, ‘아’는 오직 나만 이라는 집착으로 풀이된다. 이 4가지가 없어야 성인이라 하니, 성인으로서 이를 끊는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할 것도 없다. 성인의 경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똑같이 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또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다. 많은 일을 경험하며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다. 추잡한 걸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호

할 줄 아는 사회는 복된 사회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들도 많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 아이와 똑같이 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는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이 되고 소신은 어집이 된다. 마이크를 잡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주위에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할 것도 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건배사 중에 ‘결결이 있다’

몇 개의 서로 다른 풀이가 전해 지지만 ‘좀 더 사랑할걸, 좀 더 즐길걸, 좀 더 배울걸’이 으뜸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참을 걸’이다. 그렇다 사람이 죽기 전에 ‘좀 더 열심히 일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더 즐겁고 사랑하지 못한 게 안타깝을 뿐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 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배우는 법을 배우야 한다. 지금 이런 말들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청춘도 있을 것이다. 바지 지퍼 올릴 힘조차 없거나 흘리는 게 많아 식탁 위가 지지분해질 때 좁은나 직장 이야기라고 코웃음 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춘과 노년의 경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영국 ‘경영학의 구루’로 불리는 찰스 헨다가 B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의 일이다. 당시 승승장구하던 럭비팀 감독에게 그가 물었다. “(팀을 이끌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헐기 넘치는 선수들에게 뭘 남이 서른 이전에 끝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고, 다른 직업을 위한 재훈련을 받도록 유도하는 일입니다”

(찰스 헨다 ‘포트폴리오 인생’) 하루라도 빨리 버릴 것은 버리고 배울 것은 배우는 게 청춘의 시간을 연장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랄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언제나 양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리라.

社說

낙태죄 폐지 여론 경청해야

16~44세 여성 4명 중 3명가량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2명꼴이었는데, 임신경험자 중 낙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은 41.9%에 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를 각각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낙태죄 폐지 찬성비율이 83.9%, 30대는 75.9%, 40대는 71.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75.7%는 낙태 허용기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이들은 31.8%를 차지했다. 이 역시 20대 이하

(73.2%)와 미혼(72.7%)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중 실제로 임신중단(낙태)을 경험한 이들은 21.0%(422명)를 차지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29.6%였다.

임신경험자(1천54명)로 한정해 보면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41.9%에 달했고,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은 56.3%였다.

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로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20.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11%) 등의 응답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空 谷 傳 聲

공 곡 전 성

▷ 뜻 : 산골짜기에서 크게 소리치면 그대로 전(傳)함. 즉 악(惡)한 일을 당(當)하게 됨.

기고

박 제 훈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



융통성 없는 청탁금지법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사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청렴과 욕심, 언뜻 보면 서로 괴리감이 드는 두 단어이지만 요즘 뉴스 보도의 중심에 서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총수의 모습을 보면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어렵잖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욕심을 북돋우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2016년 9월 제정 시행하였다. 시행 이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

한 공직사회의 노력과 교육,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하여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고,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9%가 청탁금지법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져온 음료, 과자 등의 조그마한 선물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처벌받는다며 농담반 진

답만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혹 정(情)이 없어졌다고 서운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正)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 정도의 서운함은 잠시 접어둬야 하겠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매년 최상위 그룹에 올라왔다. 20세기 초 숲과 호수뿐이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핀란드인의 법과 규칙 앞에서 융통성 없는 기질 때문이라고 한다.

핀란드 관공서에는 예산항목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흔한 커피믹스나 녹차티백도

없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사소한 민원 업무부터 중대한 외교 사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법 규정에 근거해서 실행한다. 규정을 나름대로 재해석하거나 재량을 발휘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식의 ‘융통성’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1809년부터 1917년까지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자치 대공국이었던 때, 러시아의 간섭과 압제 속에서도 사법제도를 잘 수호했을 만큼 핀란드의 법에 대한 신념은 과거부터 지나치리만큼 강력하다고 한다.

고난의 역사, 급속한 경제 성장, 높은 교육열 등 핀란드와 공통점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으로 청렴한 사회를 위한 큰 발걸음을 떼었다. 한 번도 기본적 없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고물치 모른다. 하지만 조금은 미련하게, 융통성 없이 발걸음을 계속 내디뎌 보자.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공경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이 우리 앞에 와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two elderly people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erspective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 website URL.